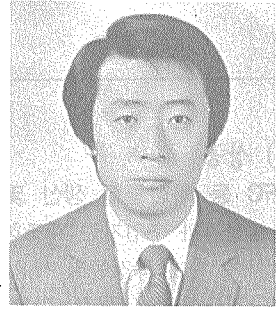


전자통신의 발전을 위한 학회의 역할

양 승택 / 한국통신학회 회장
한국통신기술(주) 사장



밝아오는 임신년 새해는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도·정보 사회의 구현을 위한 진취적이고도 신념에 찬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 시장의 개방화 추세나 우루과이 라운드 등에 의하여 해외 대기업의 국내 통신 시장의 참여가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에서 전자 통신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첨단 전자 통신 기술의 확보가 선진국 진입의 기술 전제 조건이 되리라는 것을 인식할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속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다가오는 고도정보 사회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전자 통신을 현대화하여 정보 자원의 효율적인 유통과 이용을 꾀하는 정보 자원 입국으로서의 정책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전달 위주의 전기 통신에서 컴퓨터에 의한 처리와 축적이 가미됨으로써 기존의 통신은 통신이라기 보다는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성격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기기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첨단 서비스를 대중화하고 정보 전달 매체의 효율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중 통신망 서비스를 개방하는 것 등이 그 변화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기기 관련 산업을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기기의 보급과 정보의 생산, 축적과 공동 이용 등에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간 전산망의 구축, 그리고 특히 다가오는 정보 사회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통신 관련 업계 및 연구소와 학계 등에서의 부단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 등이 사회 전반적인 고도 정보 사회의 구현을 위한 끊임 없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1세기의 고도 정보 사회에 발맞추어 선진 입국 선도와 기반 기술 확보 및 연구 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 통신 학회에서는 여러 전자 통신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 내용에 대한 협력 체제

를 구축하고 대학에 대한 국가와 산업체의 지원을 유도하여 전문 연구 기능을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92년 임신년에는 정보 사회를 위한 학술 활동을 강화하고 통신과학 분야 및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통신 과학 분야에 대한 학술 연구 활동의 국제적인 교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학계, 연구소 및 기업들의 그동안의 연구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학회지 및 논문지도 초청 논문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더욱 알차게 꾸며 전자 통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여 전자 통신 분야에 대한 급격한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한국 통신 학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정보 유통과 전파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사회 전반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관·산·학·연의 밀접한 연계를 유도하여 첨단 전자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